

마이클 주의 독특한 시선

January, 2018

Remark FEATURES



전시 <M/M 사랑/사랑> 기간 동안 담화를 찾은 M/M(Paris)의 멤버 마티아스 오귀스티니아코

재해석의 모미

지난 11월 23일 현대카드 스토리지에서 세계적인 디자이너 M/M(Paris)의 국내 첫 작품 전시인 <M/M 사랑/사랑> 기간담회가 열렸다. 마티아스 오귀스티니아코와 미술 앙잘라그가 결성한 디자인 그룹 M/M(Paris)은 패션 브랜드 라코스테의 칼렉션과 아이슬란드 가수 비외르크의 앨범 패키지와 음악과 패션을 비롯한 다채로운 영역에서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전시 제목 'M/M 사랑/사랑'은 두 디자이너의 이니셜 M의 프랑스 발음이 '사랑'을 뜻하는 Aime과 유사하다는 것에 착안해 지었으며, 알파벳을 통해 여성미와 남성미를 드러낸 'The Alphabet', 'The Alphabeten'을 비롯해 드로잉과 포스터, 오브제 등 다양한 형식의 작품 50여 점을 전시한다. 특히 M/M(Paris)은 현대카드 스토리지 지하 3층을 '상상의 정원'으로 설정해 새롭게 디자인했는데, 형형색색의 구

조물과 나무 타일로 이뤄진 미로를 따라 다음 몸무와 협업한 철제 구조물 'Citronnier'와 태극기를 재해석한 포스터 등을 감상할 수 있도록 꾸몄다. 이날 기간담회장을 찾은 마티아스 오귀스티니아코는 "전시 공간은 하나의 생태계로 볼 수 있습니다. 잠시 멈춰 서서 작품 간 연결 고리를 유추하고 이 공간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지 고고학자처럼 탐구한다면 전시는 더욱 재미있게 관람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전시는 3월 18일 까지도.

문의 02-2014-7850

마이클 주의 독특한 시선

지난 11월 30일, 국제갤러리에서 미국 작가 마이클 주(Michael Joo)의 개인전 <Single Breath Transfer>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과학자 부모님을 둔 마이클 주는 대학에서 생물학을 전공했지만, 작가가 되기 위해 다시 미술을 공부한 독특한 이력이 눈길을 끈다. 그 때문인지 그의 작업에선 과학적 사고방식이 돋보인다. 예컨대 전시 타이틀과 같은 이름의 작품 'Single Breath Transfer'는 사람의 날숨을 종이와 비닐봉지로 포착해 유리로 캐스팅한 것으로, 무형적인 숨을 고체화된 결정체로 만들어 물질적 영역과 순간적 영역에 대한 작가의 관심을 드러낸다. 성서에서 규정한 교만, 시기, 분노, 나태 등 7대 죄악을 범할 때 소모하는 칼로리 소비량을 0.001초 단위로 측정, 베이킹 트레이에 새겨 인쇄한 '7 Sins'는 과학과 종교의 경계를 탐구한 실크스 크린 연작이다. 전시에서 가장 눈길을 끈 작품은 'Liminus'로, 뉴욕의 공장 일대와 독도의 바닥에 각각 캔버스를 깔고 합성수지인 레진으로 본을 떠 만든 것이다. 마이클 주는 그 위에 여러 겹의 질산염을 덧칠해 주변 환경이 비치도록 했는데, 이에 대해 "작품이 위치한 장소, 그곳에 있는 관람객과 소통하려는 목적이 담겼다"고 밝혔다.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고 정의하는 데 도움이 될 이 전시는 12월 31일까지 열린다. 문의 02-735-8449



(Single Breath Transfer)전 전경



<배후의 조정자>전 전경

5년 만에 컴백, 가오레이

중국의 신세대를 뜻하는 '바람허우' 세대에 속하는 작가 가오레이가 오랜만에 서울에 왔다. 지난 11월 23일 아라리오갤러리 서울에서 열린 개인전 <배후의 조정자>에서 만난 그는 "5년 전과는 작품 세계가 완전히 달라졌다. 중국 정부가 베이징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내 작업실을 몰수해 상하이로 작업실을 옮겼다"며 다소 상기된 듯한 어조로 지난 시간을 회상했다. 이번 전시에서 그는 이케아 가구, 공업용 폐장비 등을 사용해 재판과 고문을 상징화한 사진과 설치 작품 18점을 선보인다.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의 저작물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으로, 동물의 박제나 뼈 등으로 권력의 폭력성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전작과 달리 은유와 상징성으로 가득한 모양새다. 특히 전시명과 같은 제목의 작품 '배후의 조정자'는 중국의 옛 지계꾼이 짐을 매달아온 반하던 지계에 송진탑에서 절연을 위해 사용하는 '매자'를 달아놓은 것으로 그의 변화한 예술 세계를 보다 심도 있게 들여다볼 수 있다. 절제된 색상과 기하학적 구조의 오브제를 통해 좀 더 '어른'이 되어 돌아온 듯한 그의 전시는 1월 7일까지 이어진다. 문의 02-541-5701